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2014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돌아보실 때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식당주방에도 들리시였다.

당시 이곳에는 온료리가공을 위한 전열설비들, 주방용랭동기와 그릇소독기, 고뿌들을 건사하는 집기류장 등이 갖추어져있었다.

식당준비실에 들어서시여 그릇소독기옆에 있는 집기류장문을 열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것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집기류장이라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소독한 그릇을 어디에 놓으려 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릇소독기 맞은편벽에 만들어놓은 당반에 놓으려 한다고 스스로럼없이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런 곳에 놓아서는 소독이 잘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현대적인 그릇소독기를 차려놓은데 만족하면서 소독된 그릇들을 어디에 놓겠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군들이였다.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일군들은 얼굴을 붉히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들을 탓할 대신 집기류소독기를 옮기고 그 자리에 집기류장을 더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처럼 과학자들을 위해 멋들어진 휴양소를 꾸려주도록 하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시였다.